

DMZ 전망대의 ‘불법 촬영’은 과연 저항적 실천인가

— 「냉전의 진열과 쇼핑: DMZ 전망대를 통해 바라본 한반도의 냉전경관」을 읽고

발제자: 김지수

토론자: 진송옥

지상현·장한별의 「냉전의 진열과 쇼핑: DMZ 전망대를 통해 바라본 한반도의 냉전경관」은 DMZ 전망대를 단순히 냉전과 분단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 국가와 군, 지방자치단체, 관광객 등 다양한 주체의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현지리학과 비재현지리학의 관점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전망대에 전시된 냉전 담론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객의 이동, 관람, 촬영과 같은 구체적인 신체적 실천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관광객이 통제구역 내에서 촬영이 금지된 장소를 몰래 촬영하여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발제문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국가가 설정한 관람 규범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일탈’이자 관광객의 주체성이 나타나는 하나의 수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관광객은 국가가 미리 구성해 놓은 안보관광의 대본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행동을 통해 그 공간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 가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불법 촬영을 곧바로 국가의 안보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적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광객이 금지된 공간을 촬영하는 이유를 반드시 국가 통제나 안보 담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현대 관광에서는 오히려 ‘볼 수 없음’과 ‘촬영할 수 없음’이 대상의 희소성과 매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지된 경관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치적 저항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이 쉽게 얻기 어려운 이미지와 경험을 소유하려는 관광객의 욕망과 관련될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오늘날 관광 경험은 SNS를 통해 끊임없이 공유되고 전시되기 때문에, 촬영이 제한된 DMZ의 경관은 오히려 특별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법 촬영은 국가의 안보 담론에 대한 저항보다는 희소한 경험과 이미지를 획득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시하는 일종의 과시적 소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DMZ 관광에서 나타나는 ‘금기 위반’ 자체가 하나의 관광 경험으로 소비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DMZ는 전쟁과 분단의 긴장이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전망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동시에 상당히 통제되고 안전이 확보된 공간입니다. 관광객은 검문과 신분 확인, 정해진 이동 경로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실제 전쟁의 위험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DMZ 에서 느끼는 긴장감은 일종의 ‘통제된 스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금지 규정을 몰래 위반하는 행동 역시 정치적 저항이라기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금기를 깨는 순간의 긴장과 재미를 소비하는 관광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문제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과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모든 일탈이 곧 저항은 아니며, 단순히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왜 규칙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기존의 권력 관계나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촬영 금지 규정을 비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든다면 일정한 저항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 기록이나 SNS 게시를 위해 몰래 촬영한 경우까지 같은 의미의 저항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실천을 분석할 때에는 행동의 형식뿐 아니라 동기와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안보와 정보 보호의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DMZ 는 냉전 담론이 재현되는 관광공간인 동시에 현재에도 군사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접경지역입니다. 따라서 모든 촬영 제한을 국가 이데올로기의 시각적 통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제한은 군사시설이나 경계 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노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안보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촬영된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보 노출이나 수집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의 문제는 단순히 ‘통제에 대한 저항’ 여부를 넘어, 정당한 안보상의 제한과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제문이 강조하는 관광객의 능동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광객의 ‘능동적 수행’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객의 행위에는 국가 담론에 대한 저항, 개인적 기억을 위한 기록, 호기심과 재미의 추구, SNS 를 위한 이미지 소비 등 다양한 동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능동성을 곧바로 저항성과 동일시하기보다는, 능동적 수행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기와 층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1. 첫째, 관광객이 국가가 설정한 관람 규칙을 위반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를 ‘저항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둘째, DMZ 에서의 불법 촬영을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희소한 이미지와 스릴을 소비하려는 현대 관광의 특성으로 이해한다면, 발제문에서 말하는 관광객의 ‘주체적 수행’은 어떻게 다시 정의할 수 있을까요?
3. 셋째, DMZ 의 촬영 통제를 국가 이데올로기의 작동으로 해석할 때, 실제 군사적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결국 DMZ 전망대는 국가가 냉전과 안보를 일방적으로 전시하는 공간도 아니며, 관광객이 그것에 자유롭게 저항하는 공간만도 아닐 것입니다. 국가와 군이 만들어 놓은 통제, 실제적인 군사 보안의 필요, 관광객의 욕망,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활성화 전략, 그리고 SNS를 중심으로 한 현대의 미디어 소비 방식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불법 촬영과 같은 미시적 실천을 분석할 때에는 이를 단순히 ‘통제 대 저항’의 관계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제·일탈·관광 소비·미디어 전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안보와 정보 보호의 요구가 서로 어떻게 결합하고 충돌하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DMZ 전망대라는 공간에서 냉전경관이 오늘날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재생산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